

인간에 있어서 자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담배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피는 것도 자신 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른의 경우라고 생각한다.

어린이에 있어서 담배를 필까 어떨까 하고 생각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가 어른이 될때까지는 어른이 어린이를 보호해야만 한다.

규칙을 만드는 것보다 어린이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학교등) 담배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 모두의 문제이다. 우리들의 아들, 딸이기 때문이다. 어른 모두가 함께 해결하는 것 이외의 방법은 없다.

텔레비에서도 담배의 선전을 밤 늦게 부터 시작하고 텔레비에서도 담배를 피는 장면을 나오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은 텔레비를 보지 않아도 피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다.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할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현대의 세상은 자신만의 세상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다.

그래서 담배를 피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치는 사람은 마음대로 담배를 필 권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